

통계로 본 서울의 여성 비정규 노동

김재민(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노동 통계 자료를 통해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는 중첩적 차별을 받고 있는 취약노동계층이다. 2016년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5년 기준 37%(OECD 평균 14%)로 OECD국가 중 1위였다.¹⁾²⁾ 성별임금격차가 37%라는 의미는 한국의 남성노동자 임금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63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노동자 내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통계청(2017)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전국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7.2%(남성 72.5%) 이지만 이 중 여성 상용근로자는 44.7%(남성 53.0%), 임시근로자 비중은 27.5%(남성 13.6%), 일용근로자 비중은 5.1%(남성 6.0%)로, 남성취업자 내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19.6%) 보다 여성 임시·일용근로자 보다 6.0%p 높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 내에서도 여성 비정규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 남성 비정규 노동자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박진희·박세정, 2014).

그러나 지역별로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통계청은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간해 전국 여성 비정규 노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발간이 중단 되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1983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한 『여성과 취업』도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여성과 취업』은 국가 수준 통계로 작성되어 지역별로 여성 비정규 노동 현황을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장진희 외(2014)의 『2014 성인지 통계: 경제활동 통계를 중심으로』는 최근 서울지역 여성의 비정규 노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서울의 여성 비정규직 현황 통계가 중심은 아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인구가 더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³⁾ 서울지역 여성노동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여성노동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생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지역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 현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1)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3) 2016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는 1천 2십만명 이며 남성은 5백만명, 여성은 5백19만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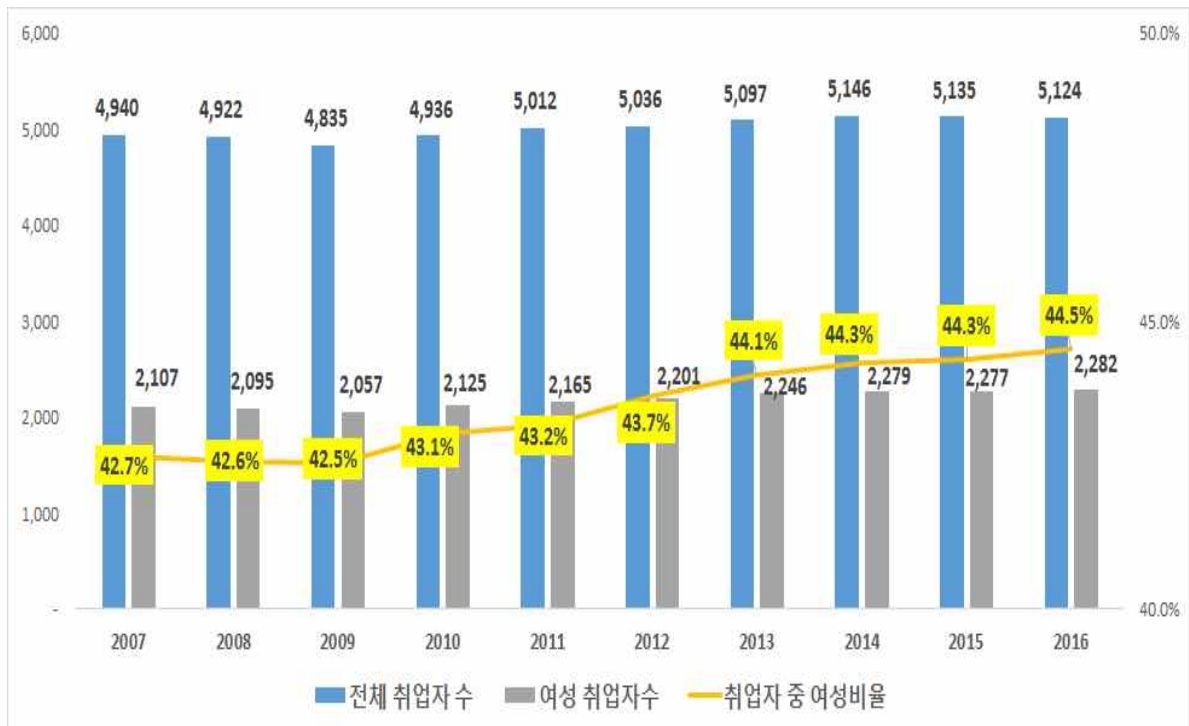
2.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 현황

1) 여성 노동자 규모와 변화

(1) 여성 취업자의 규모와 변화

- 2016년 서울지역 취업자는 5,124천명, 이 중 여성 취업자는 2,282천명(44.5%)
- 지난 10년 간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1.9%p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전체 취업자 5,124천명 중 여성은 2,28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44.5%(남성 55.5%) 이다. 2006년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7% 였으나 2016년 현재 44.5%로 지난 10년 간 1.9%p 소폭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연도별 전체·여성 취업자수와 취업자 중 여성비율 추이(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2) 종사상 지위별 성별 구성비와 변화

- 지난 10년 간 임금근로자 중 남성 비중이 더 많음, 그러나 상용직과 일용직은 남성 비중이 50% 이상이나 임시직은 여성 비중이 50% 이상
- 지난 10년 간 여성 상용직/임시직은 증가, 일용직/무급가족 종사자는 감소 추세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 무급가족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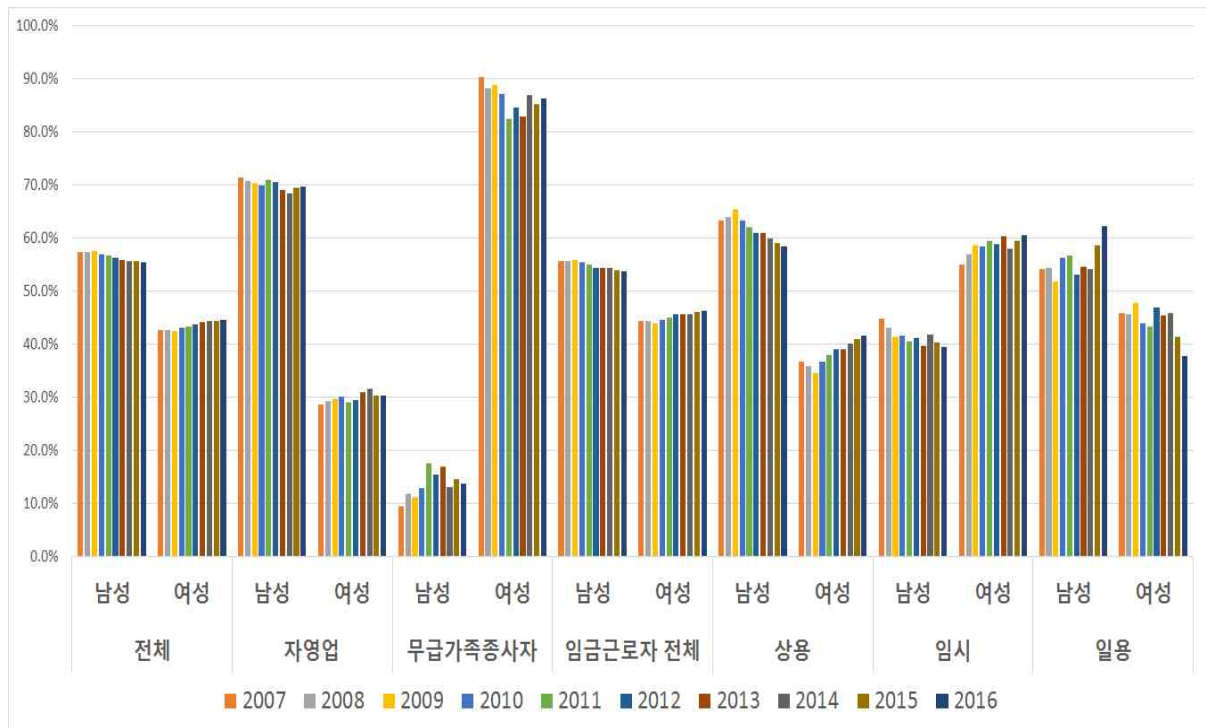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성비는 지난 10년 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다음의 <표 1>은 지난 10년 간 성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보여준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금근로자는 남성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상용직과 일용직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더 높았으나 임시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임시직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표 1> 서울지역 성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단위: %)

연도	전체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7	57.4	42.7	71.4	28.6	9.5	90.5	55.6	44.4	63.2	36.8	44.9	55.1	54.2	45.8
2008	57.4	42.6	70.8	29.2	11.7	88.3	55.7	44.3	64.1	35.9	43.0	57.0	54.4	45.6
2009	57.5	42.5	70.3	29.7	11.2	88.8	56.0	44.0	65.4	34.6	41.4	58.6	51.9	47.9
2010	56.9	43.1	70.0	30.0	12.9	87.1	55.5	44.5	63.4	36.6	41.6	58.5	56.4	43.8
2011	56.8	43.2	70.9	29.1	17.4	82.6	54.9	45.1	62.0	38.0	40.5	59.5	56.7	43.3
2012	56.3	43.7	70.6	29.4	15.3	84.7	54.4	45.6	61.0	39.0	41.2	58.8	53.0	47.0
2013	56.0	44.1	69.1	30.9	17.0	83.0	54.4	45.6	60.9	39.1	39.7	60.3	54.6	45.4
2014	55.7	44.3	68.4	31.6	13.0	87.0	54.3	45.7	59.9	40.1	41.9	58.1	54.2	45.8
2015	55.7	44.3	69.6	30.3	14.6	85.4	53.9	46.1	59.1	40.9	40.4	59.6	58.7	41.3
2016	55.5	44.5	69.7	30.3	13.6	86.4	53.7	46.3	58.5	41.5	39.4	60.6	62.2	3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2〉 성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여성 취업자 구성비와 변화

■ 여성취업자 구성 비율은 상용직>임시직>자영업>일용직>무급가족 종사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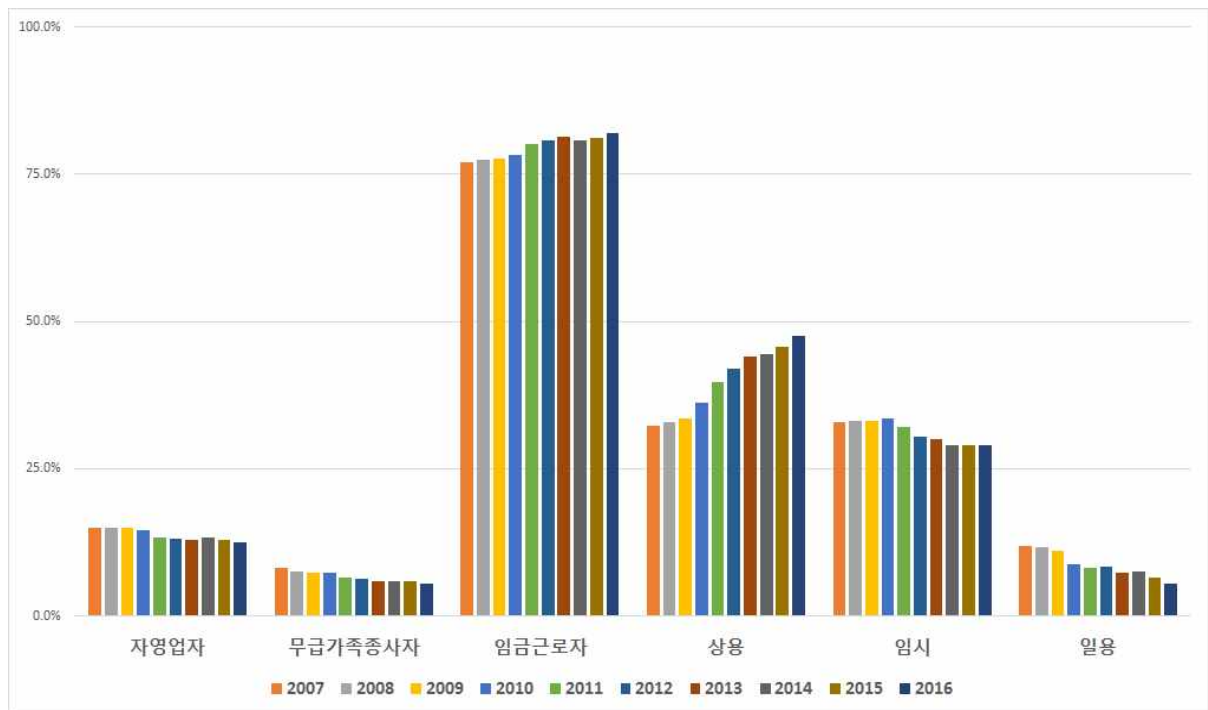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중 지난 10년 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자영업자와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순이었다. 지난 10년 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직은 상용근로자에서 구분되지 않아 간접고용이 상용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표 2>, <그림 3> 참조).

〈표 2〉 서울지역 연도별·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2007	15.0%	8.1%	76.9%	32.3%	32.8%	11.8%
2008	15.0%	7.5%	77.5%	32.8%	33.0%	11.7%
2009	15.0%	7.3%	77.7%	33.6%	33.1%	11.0%
2010	14.5%	7.3%	78.3%	36.1%	33.4%	8.7%
2011	13.4%	6.6%	80.0%	39.8%	32.1%	8.2%
2012	13.0%	6.3%	80.7%	41.9%	30.3%	8.5%
2013	12.8%	5.9%	81.3%	43.9%	30.0%	7.4%
2014	13.3%	5.9%	80.8%	44.4%	29.0%	7.5%
2015	12.9%	5.9%	81.2%	45.7%	28.9%	6.6%
2016	12.5%	5.6%	81.9%	47.5%	28.9%	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3〉 서울지역 연도별·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비율 변화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2)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추이

(1) 서울지역 임금근로자 규모와 구성비

- 서울지역 여성 상용직은 2,610천명, 임시직과 일용직은 787천명
- 지난 10년 간 남녀 상용직 모두 증가 추세, 임시·일용직 감소 추세
- 지난 10년 간 남성 상용직 > 여성 상용직, 여성 임시·일용직 > 남성 임시·일용직

서울시 비정규직 규모는 어떠한가? 2016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는 4,036천명으로, 남성 2,166천명, 여성 1,869천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서울시 상용직 노동자는 2,610천명으로 남성은 1,527천명, 여성 1,083천명,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1,426천명 남성 639천명, 여성 787천명 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서울지역 연도별·성별 노동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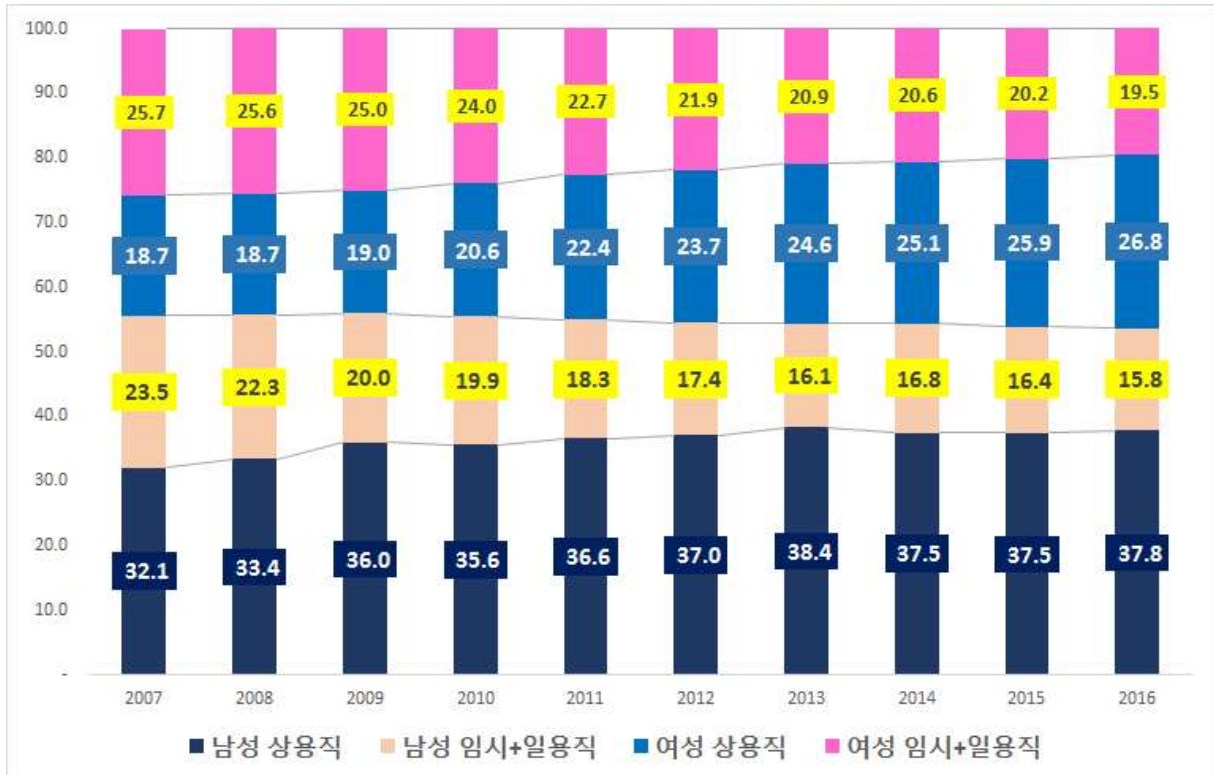
(단위: 천명)

연도	임금근로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7	3,649	2,028	1,621	1,852	1,171	681	1,797	857	939
2008	3,666	2,042	1,624	1,912	1,225	687	1,755	817	938
2009	3,629	2,031	1,598	1,996	1,305	691	1,634	726	907
2010	3,733	2,070	1,663	2,096	1,328	768	1,636	743	895
2011	3,843	2,111	1,732	2,268	1,407	861	1,575	704	871
2012	3,898	2,122	1,776	2,366	1,444	922	1,532	678	854
2013	4,006	2,181	1,826	2,524	1,537	987	1,482	643	839
2014	4,032	2,191	1,841	2,525	1,513	1,012	1,507	677	830
2015	4,013	2,164	1,849	2,544	1,503	1,041	1,469	660	809
2016	4,036	2,166	1,869	2,610	1,527	1,083	1,426	639	7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다음의 <그림 4>는 연도별로 임금근로자를 성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상용직 비율은 남성 상용직 비율 보다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0년 간 8.1%p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 임시·일용직과 여성 임시·일용직은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임금근로자 중 남성 상용직 비율은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

에 비해 1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10년 간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은 남성 임시·일용직에 비해 항상 그 비율이 약 2~4%p 높았다. 또한 남성 상용직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 임금근로자 구성비 연도별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2)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

- 2016년 현재 전국 비정규직 규모 남성 2,906천명, 여성 3,538천명이나 실제로는 남성 4,008천명, 여성 4,688천명 추정
- 2016년 서울지역 남성 비정규 추정치 881천명, 여성 비정규 추정치 1,043천명
- 서울지역 비정규직 추정치는 남성 250천명, 여성 256천명이 더 많음
- 서울지역 추정치에 의하면 남성 정규직(32.7%) 비율이 가장 많고, 그다음 여성 비정규직 (25.8%), 남성 비정규직(21.8%), 여성 정규직(20.8%) 순이었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만 나눈다. 상용직은 보통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또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7)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조사해 비정규직이 과소 추정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하였다.⁴⁾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규모 보다 실제 비정규직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남성 비정규직은 2,906천명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남성비정규직 규모는 4,008명으로 1,102천명이 더 많았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3,538천명인 것으로 제시하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재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4,688천명으로, 1,150천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조).

〈표 4〉 전국 연도별·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 비교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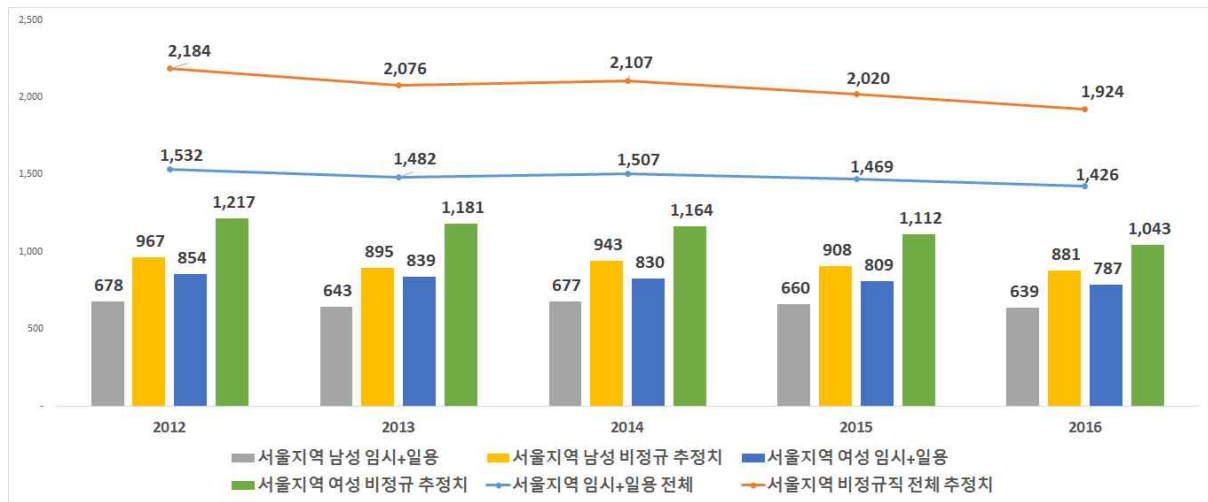
연도	임금 근로자 전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성 정규직	여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 직	여성 비정규 직	남성 정규직	여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 직	여성 비정규 직
2007	15,882	6,328	3,851	2,907	2,796	5,058	2,249	4,177	4,398
2008	16,104	6,667	3,991	2,699	2,746	5,331	2,397	4,034	4,340
2009	16,479	6,833	3,891	2,681	3,073	5,545	2,399	3,970	4,565
2010	17,048	7,134	4,228	2,649	3,037	5,822	2,675	3,960	4,590
2011	17,510	7,242	4,273	2,791	3,203	6,028	2,863	4,006	4,613
2012	17,734	7,377	4,445	2,757	3,154	6,028	3,103	3,932	4,496
2013	18,240	7,634	4,661	2,758	3,187	6,552	3,360	3,840	4,488
2014	18,776	7,809	4,890	2,826	3,251	6,700	3,582	3,935	4,560
2015	19,312	7,997	5,044	2,882	3,390	6,914	3,773	3,965	4,661
2016	19,627	8,102	5,081	2,906	3,538	7,000	3,931	4,008	4,6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각 년도 재구성.

4) 2001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의 고용형태를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으로 재분류하였다. 분류 처리 시 기준은 원자료에서 응답자 응답 시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고용지속 가능성, 시간제노동 여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재분류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7, 70-72) 참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특수고용이나 용역직, 파견직 노동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시군만 구분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현재는 근로형태별 고용규모를 전국 수치만 파악할 수 있어 서울지역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추정치를 추정하였다.⁵⁾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재분석하여 제시한 전국 비정규직 현황과 달리 서울지역 추정치는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성별 비정규직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비정규직 추정치를 성별로 파악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다음의 <그림 6>과 같다.⁶⁾ 서울지역 임시·일용직은 2012년 1,532천명, 2016년 현재 1,426천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에 따른 서울 추정치에 의하면 2016년 서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92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현재 서울의 여성 임시·일용직은 787천명이었으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정치에 의하면 1,04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비정규직은 881천명으로 남성 임시·일용직 보다 250천명, 즉 약 1.3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비정규직은 1,043천명으로 256천명, 즉 1.33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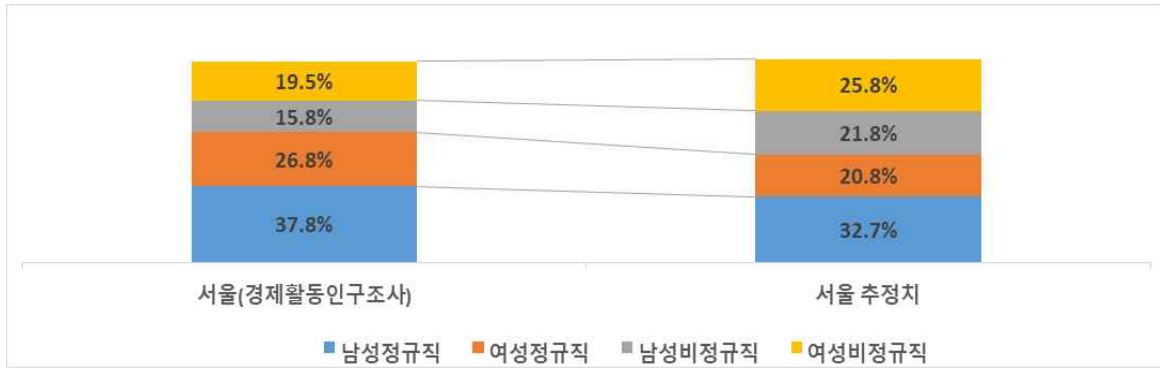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지역 연도별·성별 비정규직 규모 비교(단위: 천명)

-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각 년도.
 3. 각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서울지역 성별 비정규직 규모 추정치를 구함.

다음의 <그림 6>은 2016년 서울지역 성별·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구성비와 서울지역 추정치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지역 성별·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구성비에 의

5) 서울지역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계산방법은 전국 대비 서울지역 비정규직 비율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 비정규직 규모 현황에 대비하여 서울지역 성별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동·읍만 구분하기 때문에 시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상용근로자)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근로자) 규모에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곱하여 서울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다.

하면 일용직과 임시직은 3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 비정규직 추정치는 무려 47.6%로 12.3%p가 증가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비정규직은 6.3%p(25.8%), 남성 비정규직은 6%p(21.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성별 정규직은 각각 남성 정규직 -5.1%p, 여성 정규직은 -6%p 감소하였다.



<그림 6> 서울지역 성별·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구성비 비교(단위: %)

-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16.
 2. 추정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활용한 추정치.
 3.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정규직은 상용직,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결과를 의미.

(3) 300인 이상 기업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실태

- 300인 이상 기업 직접고용 남성 비정규직 333,419명, 여성 비정규직 276,835명, 기업 남성 간접고용직 365,135명, 여성 간접고용직 156,602명
- 300인 이상 대기업 성별·고용형태별 구성비는 남성 정규직(32.7%)> 여성 비정규직(25.8%)> 남성 비정규직(21.8%)> 여성 정규직(20.8%) 순
- 300인 이상 대기업 시간제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이 39,114명, 여성 비정규직이 12,91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여성 시간제 비율(10.6%)보다 서울 여성 시간제 비율(6.3%)이 4.3%p 낮아

앞 장에서는 서울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았다. 기존 통계에서 상용직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고용직 등을 비정규직에 포함하여 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지역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현재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통해 서울지역 대기업의 간접고용 규모는 파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300인 이상 대기

업이 직접고용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소속 외 노동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 규모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로, 기업이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규모는 300인 이상 기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고용형태 공시제는 고용형태를 성별로도 구분하고 있어 간접고용 중 여성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2016).

2017년 고용형태 공시자료에 따른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의 2017년 성별·근로형태별 고용규모 현황은 다음의 <표 5>에서 볼 수 있다. 서울 소재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812,4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은 1,090,259명, 남성은 1,722,187명으로 남성 노동자가 631,92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이 1,023,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여성 직접고용 정규직(656,822명), 남성 간접고용직(365,135명), 남성 직접고용 비정규직, 여성 직접고용 비정규직(276,835명), 여성 간접고용직(156,602명) 순으로 나타났다.⁷⁾

<표 5>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성별·고용형태별 노동자 규모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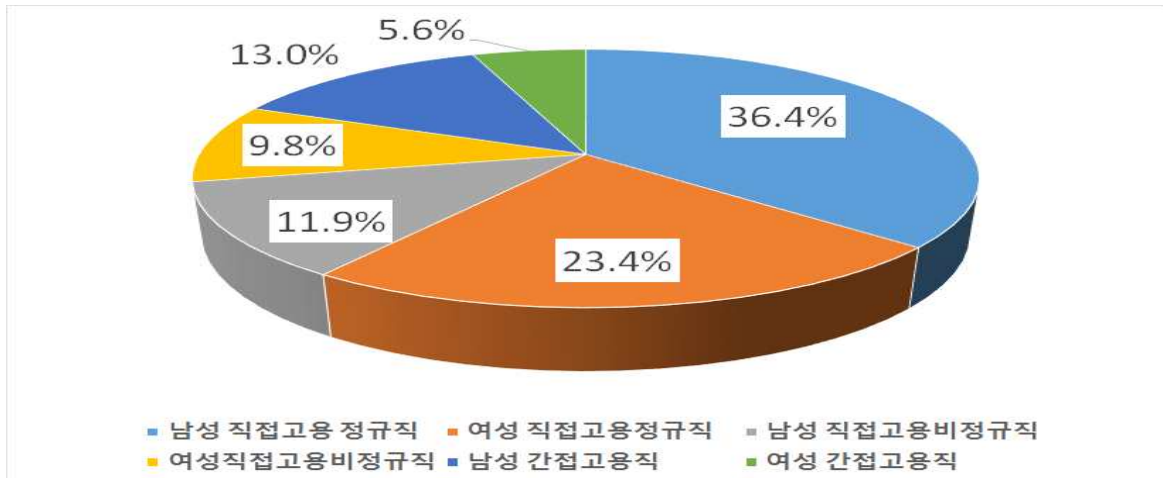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남성	1,023,633	333,419	1,357,052	365,135	1,722,187
여성	656,822	276,835	933,657	156,602	1,090,259
계	1,680,455	610,254	2,290,709	521,737	2,812,44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2017.

<그림 7>은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고용형태별 노동자 구성비를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동자는 61.3%인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38.8%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 나누면 직접고용 정규직은 59.8%였으나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직 비율도 무려 40.3%에 달했다.

성별·고용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직접고용 정규직 비율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여성 직접고용 정규직이 23.4%로 많았다. 남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9%, 여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8%, 남성 간접고용직은 13.0%, 여성 간접고용직은 5.6%인 것으로 파악된다.

7)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분류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소속 외 근로자 수는 간접고용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7〉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 성별·고용형태별 규모 구성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2017.

다음의 <표 6>은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고용형태별 전일제(full-time) 노동자와 시간제(part-time) 노동자 규모를 보여준다.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는 113,990명으로 남성 시간제 노동자(61,961명)에 비해 52,299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는 16,002명에 불과했으나 여성 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는 무려 55,116명으로 39,114명이 더 많았다.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도 남성은 45,959명이었지만 여성은 58,874명으로 12,915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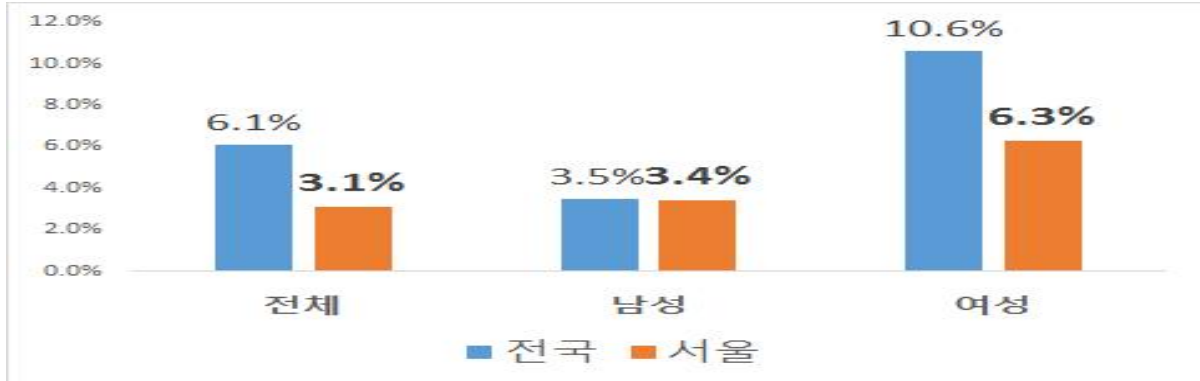
〈표 6〉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성별·근무형태별 노동자 규모

(단위: 명)

직접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full-time)	시간제 (part-time)	전일제 (full-time)	시간제 (part-time)
남성	1,007,631	16,002	287,460	45,959
여성	601,706	55,116	217,961	58,874
계	1,609,337	71,118	505,421	104,83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2017.

다음의 <그림 8>은 서울지역과 전국의 시간제 노동자 성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국의 300인 이상 기업 중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6.1%이나 서울은 3.1%로 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서울지역의 남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각각 3.5%, 3.4%로 유사하다. 그러나 서울지역 여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6.3%)은 전국 평균(10.6%)에 비해 4.3%p 무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6.3%)은 서울지역 남성시간제 노동자 비율(3.4%)보다 무려 2.9%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지역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이유는 여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전국 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여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남성 시간제 노동자 비율에 비해 약 2배가 높았다.



〈그림 8〉 전국과 서울의 300인 이상 기업 시간제 노동자 비율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2017.

3. 종사상 지위별 서울지역 여성노동자 특성

앞 장에서는 서울지역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율을 가지고 구한 서울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추정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본 장에서는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6년 8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그러나 지역별고용조사는 비정규노동 중 하나인 간접고용 등이 포함하거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직을 정규직,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종사상 지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바꾸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그대로 명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서울지역 여성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연령별, 학력별,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연령

- 남성(33.6%)과 여성(32.3%) 모두 30대에서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은 40대에서 가파르게 증가
- 여성 상용직과 남성 상용직은 30대를 중심으로 산모양 분포
- 여성 임시·일용직과 남성 임시·일용직은 30대를 중심으로 M자형 분포

연령별로 여성 임시·일용직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다음의 <표 7>은 서울지역 임금근로자를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남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우선 상용직부터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상용직 모두 30대(남성 33.6%, 여성 3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상용직 연령은 여성은 20대(27.7%)였고 남성은 40대(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에서 여성 상용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았으나 30대 부터 남성 상용직 비율이 여성 상용직 비율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임시·일용직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여성 임시·일용직(각각 20.0%, 11.0%)보다 남성 임시·일용직(각각 21.3%, 16.6%)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 부터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40대 21.3%, 50대 24.9%)이 남성 임시·일용직(40대 19.0%, 50대 22.0%) 비율을 추월하고 있다.

<표 7> 서울지역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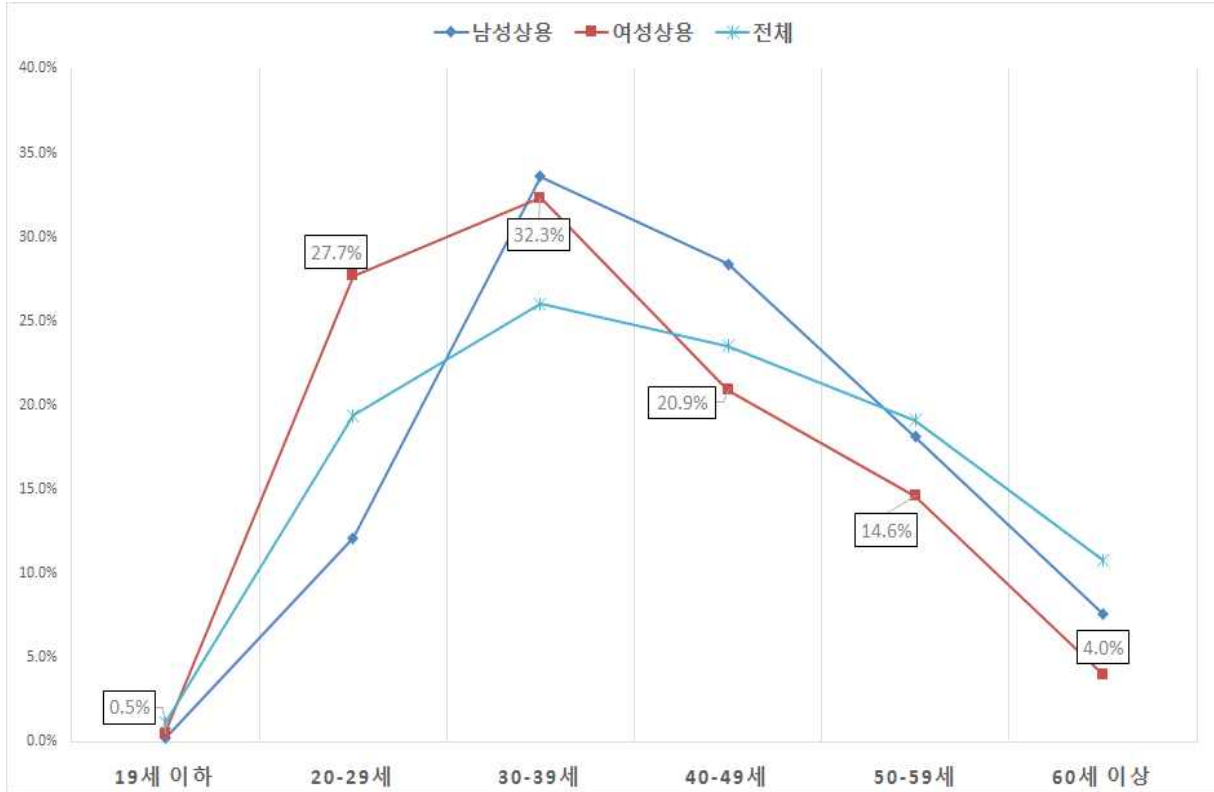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남성 상용직	0.2%	12.1%	33.6%	28.4%	18.1%	7.6%	100%
여성 상용직	0.5%	27.7%	32.3%	20.9%	14.6%	4.0%	100%
남성 임시·일용직	2.3%	21.3%	16.6%	19.0%	22.0%	18.9%	100%
여성 임시·일용직	3.7%	20.0%	11.0%	21.3%	24.9%	19.7%	100%
임금근로자 전체	1.1%	19.4%	26.0%	23.5%	19.1%	10.8%	100%

자료: 통계청. 2016.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다음의 <그림 9>는 연령별로 임금근로자 및 남녀 상용직 모두 30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모양 곡선을 보여주는데 그 양상이 성별로 다르다. 또한 여성 상용직은 20대(27.7%)와 30대(32.3%)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남성 상용직은 30대(33.6%)와 40대(28.4%)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여성과 남성 상용직은 모두 M자형 곡선을 보여준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 M자형 곡선 양상이 다르다. 남녀 모두 30대에서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30대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11.0%)은 남성(16.6%) 보다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시·일용직은 40대(21.3%)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50대(24.9%)에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 임시·일용직 또한 40대(19.0%)와 50대(22.0%)에 그 비율이 증가하지만 여성 임시·일용직 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경우 30대에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40대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남성은 40대 또는 50대 조기퇴직을 하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서울지역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비교

자료: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그림 10> 서울지역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비교

자료: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산업

- 서울지역 여성노동자의 51.8%는 도매및소매업(1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0%), 교육서비스업(11.8%)에 종사
- 여성노동자가 남성보다 더 많이 고용된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3.3%), 교육서비스업(66.1%), 숙박및음식점업(62.4%)
- 여성 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고용격차가 가장 산업은 농업·임업·어업(64.3%p),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36.4%p),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33.7%p)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및음식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여성 상용직 비율은 50% 미만

다음의 <표 8>은 산업별로 남성과 여성 노동자 구성비가 어떠한지 보여준다. 서울지역의 전체 산업 중 여성 노동자는 도매및소매업(14.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14.0%), 교육서비스업(11.8%), 숙박및음식점업(11.2%)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51.8%를 차지한다. 남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도매및소매업(13.4%), 건설업(13.0%), 제조업(10.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1%)으로 전체 산업에서 총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서울지역 산업별·성별 노동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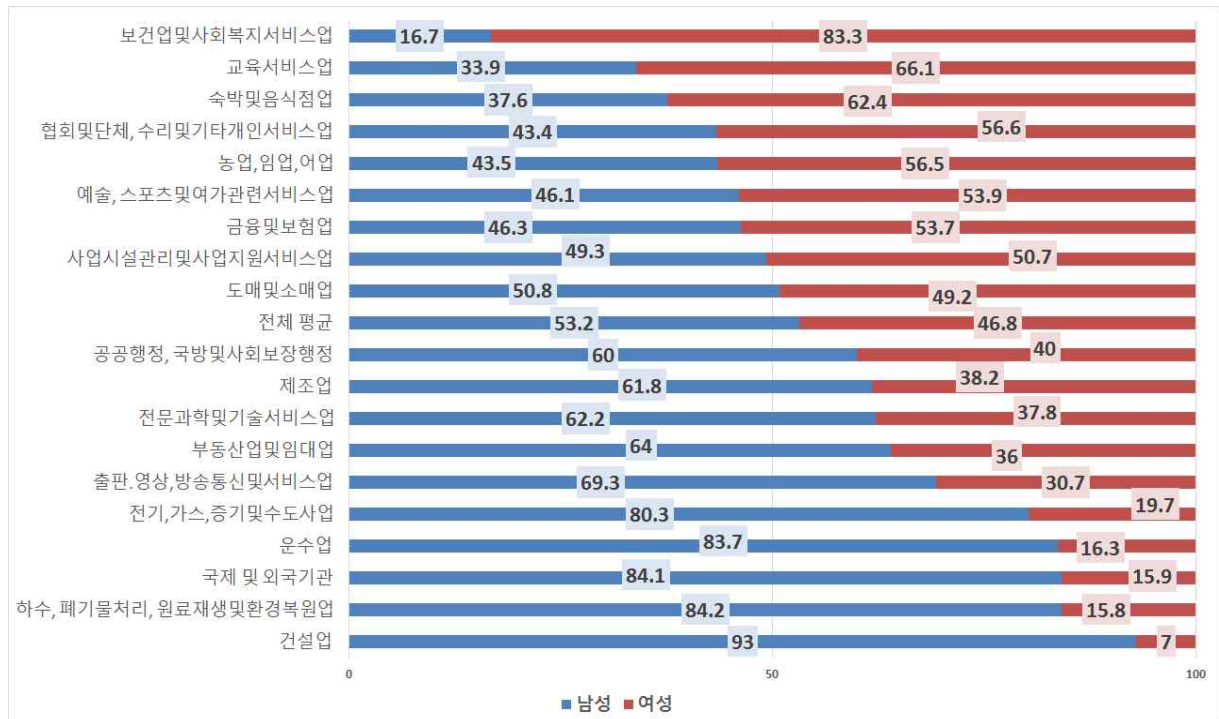
(단위: %)

산업	남성	여성
도매및소매업	13.4	1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5	14.0
교육서비스업	5.3	11.8
숙박및음식점업	5.9	11.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8	8.0
제조업	10.4	7.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1	7.0
금융및보험업	4.7	6.2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8	5.6
출판영상방송통신및서비스업	8.8	4.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3	3.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5	2.0
운수업	5.7	1.3
부동산업및임대업	2.8	1.8
건설업	13.0	1.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4	0.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4	0.1
국제및외국기관	0.2	0.04
농업임업어업	0.03	0.04
계	100	100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광업 제외.

다음의 <그림 10>은 각 산업별로 성별 비율이 어떠한지 비교하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집중 고용된 산업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83.3%), 교육서비스업(66.1%), 숙박및음식점업(62.4%),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56.6%)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남성노동자가 가장 많이 집중 고용된 업종은 건설업(93.0%)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84.2%), 국제및외국기관(84.1%), 운수업(83.7%) 순으로 집중 고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성별로 집중고용 되는 산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서울지역 산업별·성별 근로자 구성비 비교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광업 제외.

다음의 <표 9>는 종사상지위별·산업별로 성별 노동자 구성비 및 여성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격차를 보여준다. 산업별로 상용직 중 여성노동자 비율과 임시·일용직 중 여성노동자 비율 간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 농업·임업·어업(64.3%p)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36.4%p),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33.7%p), 제조업(30.6%p) 순 이었다. 즉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 제조업은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이 여성 상용직 비율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8> 참조). 여성 임시·일용직 보다 여성 상용직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업과 건설업이었다. 그러나 앞의 <표 8>, <그림 11>에서 보듯 운수업(1.3%), 건설업(1.1%) 모두 여성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여성 상용직 비율이 여성 임시·일용직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운수업과 건설업에서의 여성 상용직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은 규모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산업별·성별 노동자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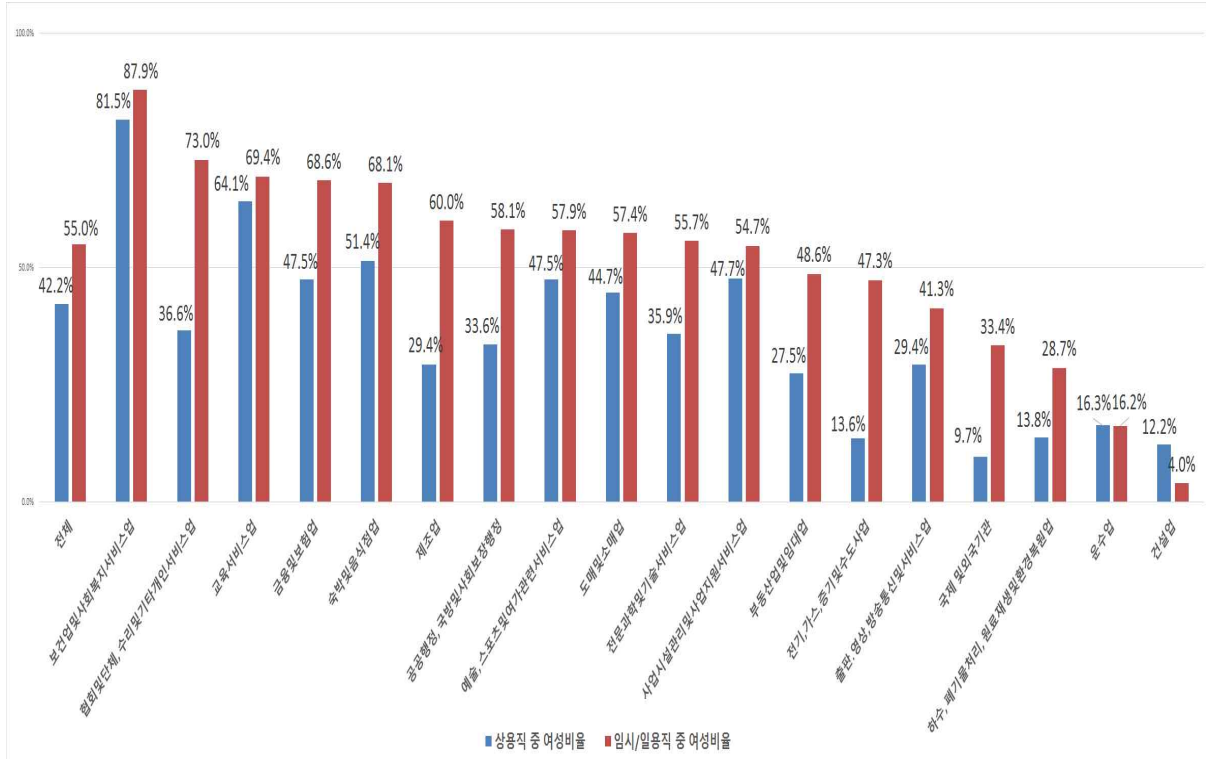
구분	상용직(A%)		임시·일용직(B%)		상용직과 임시·일용 격차 (B-A%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전체 평균	57.8	42.2	45	55.0	12.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5	81.5	12.1	87.9	6.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3.4	36.6	27	73.0	36.4
교육서비스업	35.9	64.1	30.6	69.4	5.3
금융및보험업	52.5	47.5	31.4	68.6	21.2
숙박및음식점업	48.6	51.4	31.9	68.1	16.7
농업,임업,어업	100	0.0	35.7	64.3	64.3
제조업	70.6	29.4	40	60.0	30.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6.4	33.6	41.9	58.1	24.5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2.5	47.5	42.1	57.9	10.5
도매및소매업	55.3	44.7	42.6	57.4	12.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4.1	35.9	44.3	55.7	19.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 스업	52.3	47.7	45.3	54.7	6.9
부동산업및임대업	72.5	27.5	51.4	48.6	21.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86.4	13.6	52.7	47.3	33.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서비스업	70.6	29.4	58.7	41.3	11.9
국제 및 외국기관	90.3	9.7	66.6	33.4	23.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6.2	13.8	71.3	28.7	14.8
운수업	83.7	16.3	83.8	16.2	-0.1
건설업	87.8	12.2	96	4.0	-8.3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광업 제외.

〈그림 12〉는 산업별로 종사상 지위별 여성종사자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의 여성 종사자 내에서 임시·일용직 비율은 상용직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임시·일용직 중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87.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73.0%), 교육서비스업(69.4%) 순이었다. 여성 임시·일용직이 비율이 낮은 산업은 건설업(4.0%), 운수업(16.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28.7%)순 이었는데, 이들 산업은 상용직 중 여성종사자 비율(각각 13.8%, 16.3%, 12.2%)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

상용직 중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1.5%), 교육서비스업(64.1%), 숙박및음식업(51.4%)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상용직 비율이 높은 산업은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 또한 높은 특성을 보인다(각각 87.9%, 69.4%, 68.1%). 그러나 여성 상용직 비율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및음식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5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2〉 서울지역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여성근로자 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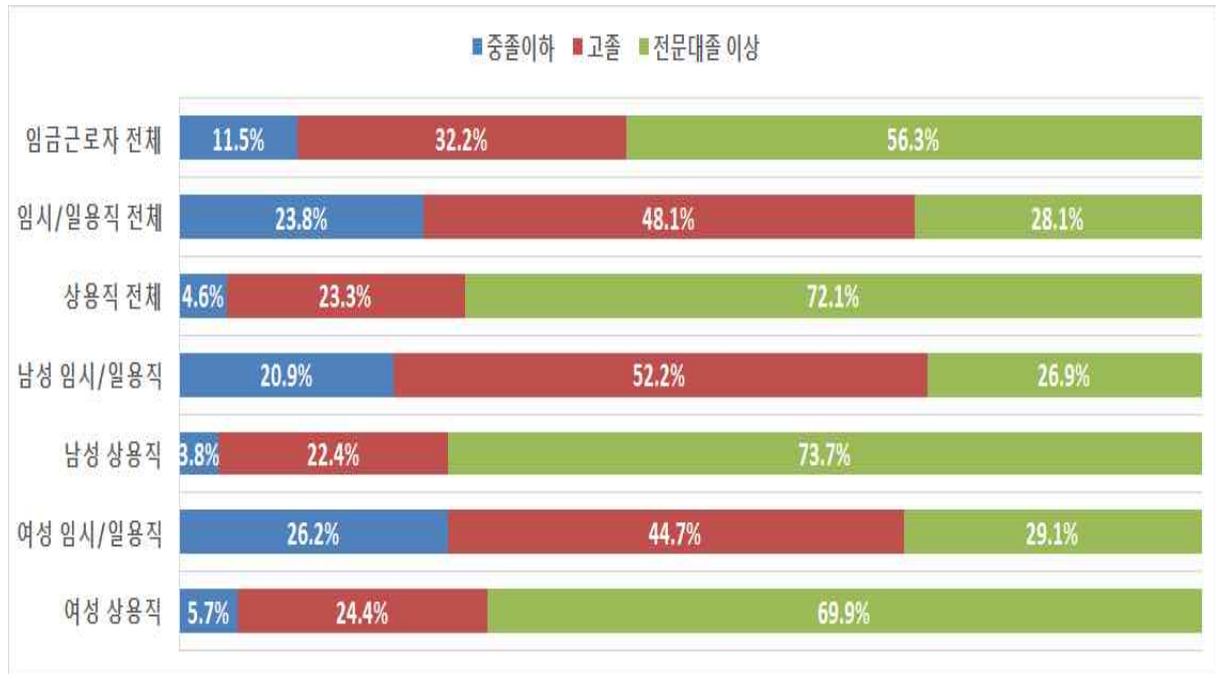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광업 제외.

3) 학력

-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높음
- 전 학력에서 여성 상용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음
- 60대 이상에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모두 중졸 이하 비율이 높음

성별을 나누어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이 학력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우선 전체 임시·일용직의 학력을 살펴보면 23.8%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시·일용직의 48.1%는 고졸 학력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시·일용직 중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28.1%에 불과했다. 여성 임시·일용직의 학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26.2%, 고졸이 44.7%로 나타났으나 전문대졸은 29.1%에 불과했다. 즉 여성 임시·일용직에서 중졸 이하와 고졸의 비중을 합치면 무려 70.9%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임시·일용직 중 중졸 이하는 20.9%, 고졸은 52.2%, 전문대졸 이상은 26.9%으로 고졸 이하 비율이 73.1%에 달한다. 반면에 여성 상용직은 중졸 이하는 5.7%, 고졸은 24.4%에 불과하나 전문대졸 이상이

무려 69.9%인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상용직은 72.1%가 전문대 졸 이상으로 여성보다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는 4.6%에 불과했다. 즉 학력이 낮은 여성 또는 남성 일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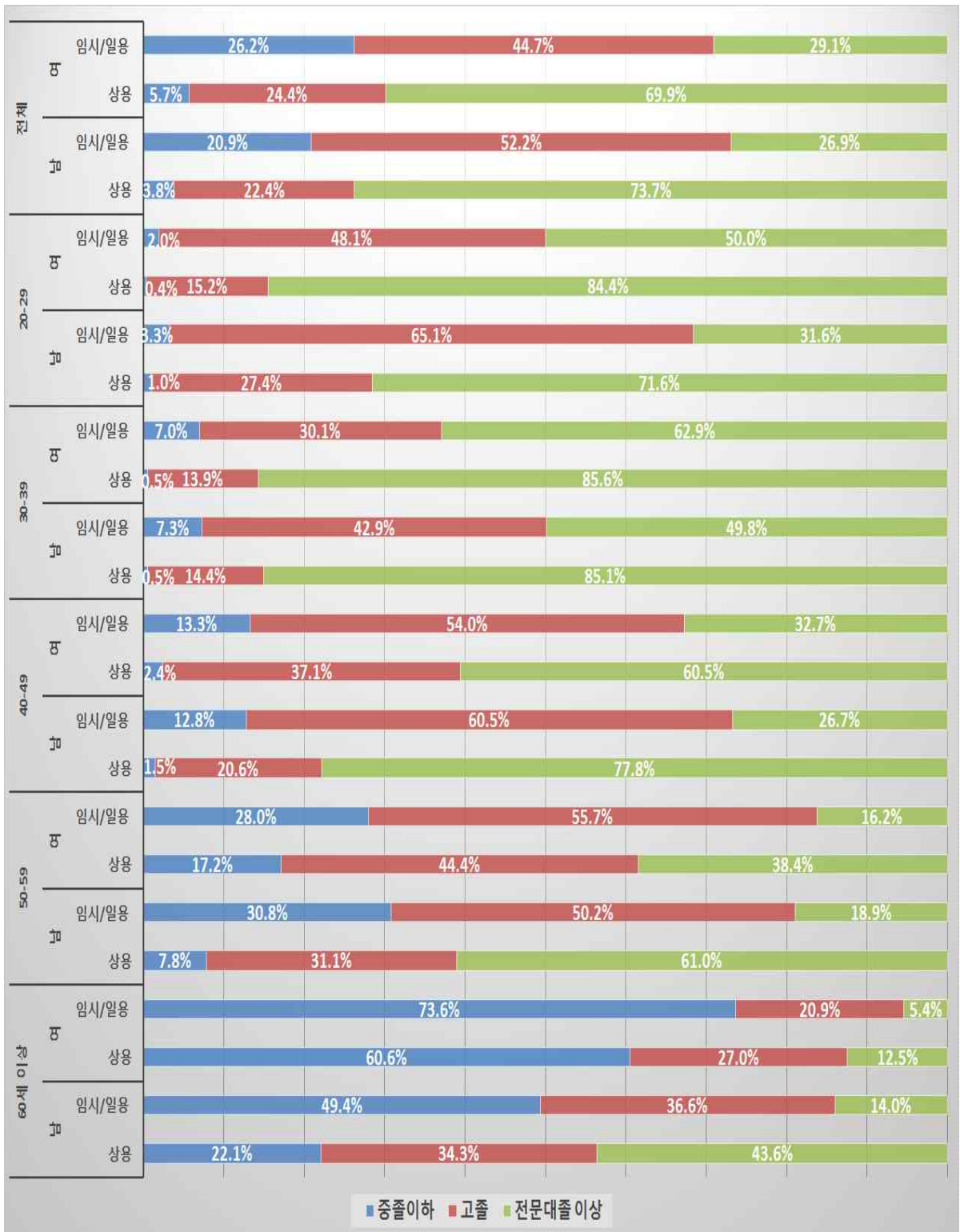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에 따른 학력 구성비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다음의 <그림 14>는 종사상 지위별·성별에 따른 학력 구성비를 연령으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19세 이하 제외). 그 결과 60세 이상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과 남성,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중졸 이하 비율이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여성 임시·일용직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학력자가 무려 73.6%에 달했으며(여성 임시·일용직 전체 평균 26.2%) 여성 상용직도 중졸 이하 학력자가 무려 6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 상용직 전체 평균 5.7%). 남성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모두 여성 보다 중졸 이하 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남성 60대 이상 임시·일용직의 중졸 이하 학력자 비율 또한 무려 49.4%로, 전체 남성 임시·일용직의 중졸 이하 학력자(20.9%) 비율 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달리 60세 이상 남성 상용직에서 중졸 이하 학력자(22.1%)는 전체 남성 상용직 평균 (5.7%) 보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60.6%)과 달리 50%를 넘지 않았다. 대신 60대 이상 남성 상용직에서는 전문대 졸 이상(43.6%) 학력자 비율이 남성 임시·일용직(14.0%), 여성 상용직(12.5%), 여성 임시·일용직(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을 은퇴하기 시작하는 60세 이상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모두 저학력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졸 이하 학력 계층은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중졸 이하 여성 노동자가 임시·일용직, 상용직에서 남성 노동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학력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불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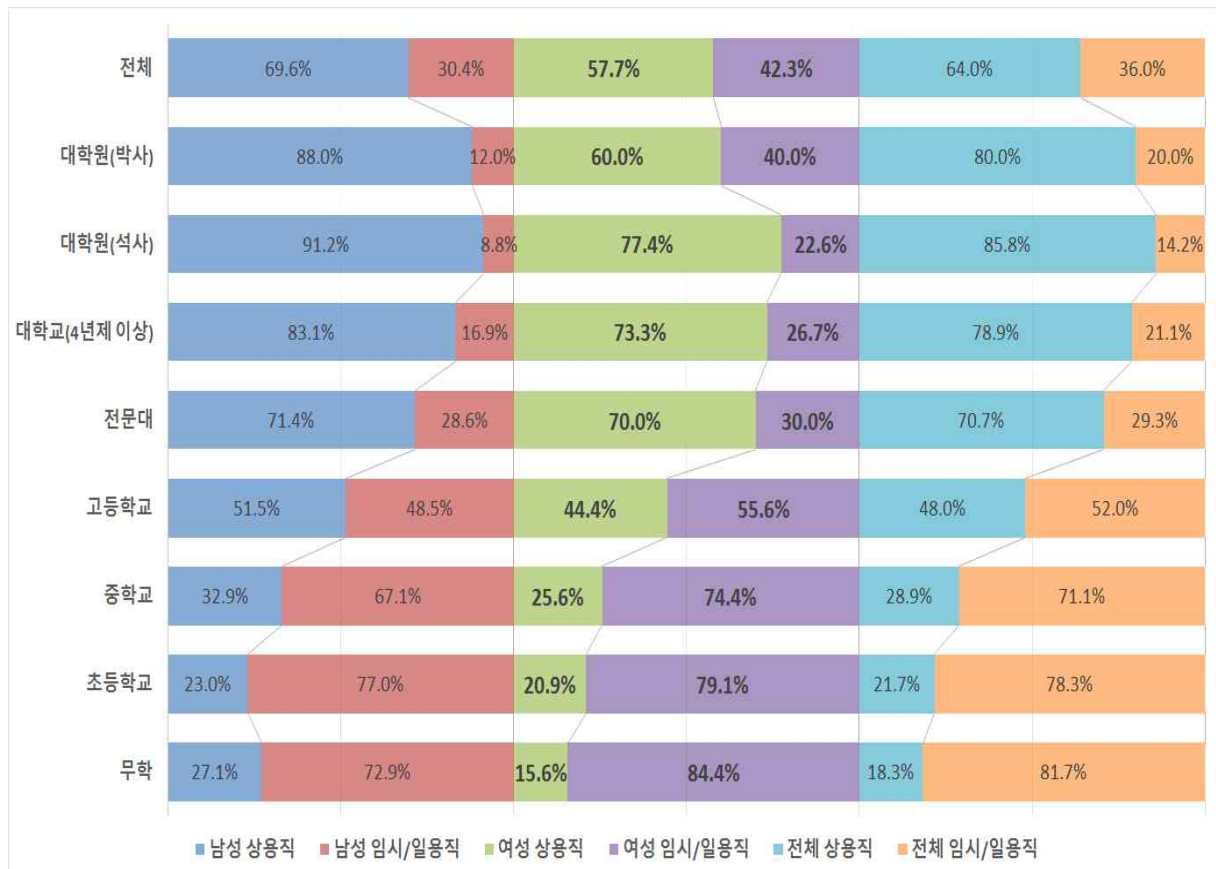
등한 노동시장에서 학력차별과 성차별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온 고령의 여성노동자는 은퇴하기 어려워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4>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연령별에 따른 학력 구성비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19세 이하 제외.

다음은 세부 학력별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중학교 이하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부터 상용직(51.5%)비율이 임시·일용직(48.5%) 비율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 부터 상용직 비율(70.0%)이 임시·일용직 비율(30.0%) 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 또한 전 학력별에서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은 남성 임시·일용직 비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4년제)의 경우 학사, 박사, 석사 모두 여성 상용직(각각 73.3%, 77.4%, 60.0%) 보다 남성 상용직 비율(83.1%, 91.2%, 88.0%)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사와 같은 고학력층에서 남성(88.0%)과 달리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60.0%에 불과한데, 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일하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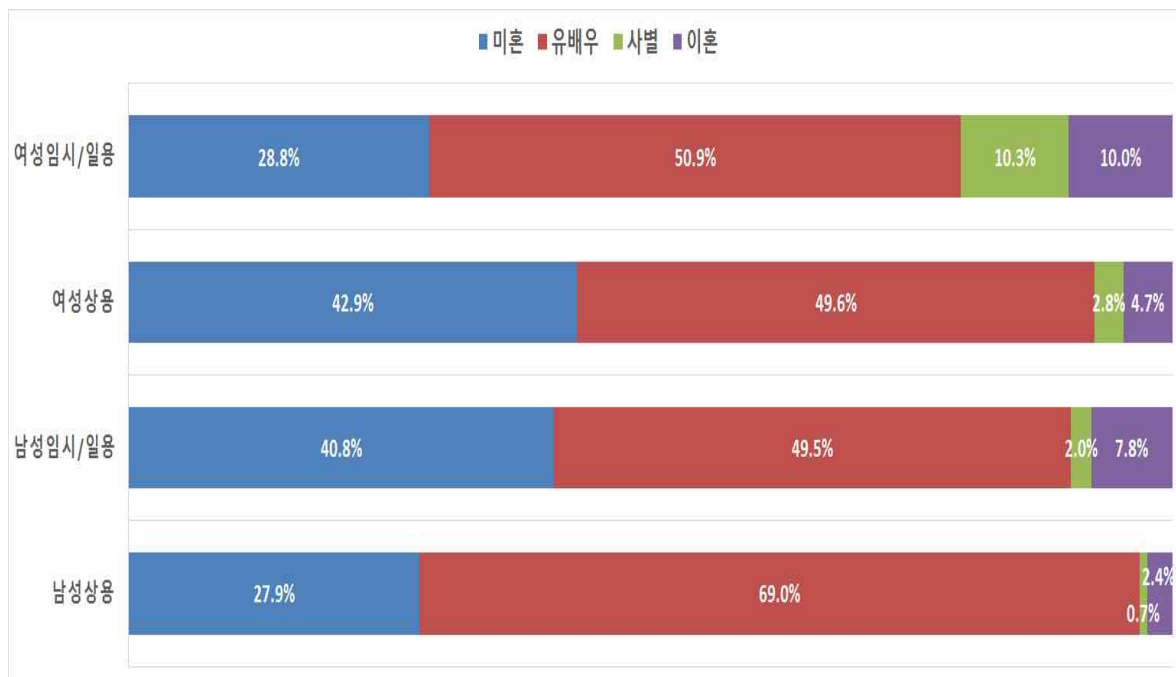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에 따른 학력별 구성비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4) 혼인상태

- 여성 임시·일용직에서 이혼(10.3%)과 사별(10.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혼자 비율은 여성 상용직(42.9%)과 남성 임시·일용직(40.8%)에서 높음
- 전문대 이상 학력의 가진 여성계층의 경우에도 이혼(41.3%)·사별(44.9%)에서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여성 유배우(22.7%)·미혼(22.4%) 보다 훨씬 높음

우선 혼인상태별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여성 임시·일용직은 이혼(10.3%)과 사별(10.0%) 비율이 여성 상용직, 남성 상용직, 남성 임시·일용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이혼 또는 사별하는 경우 자녀 돌봄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도 이혼상태인 노동자의 비율이 무려 7.8%로 여성 임시·일용직 다음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미혼 비율은 여성 상용직(42.9%)과 남성 임시·일용직(4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임시·일용직(50.9%) 중 유배우인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50.9%)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성 상용직 중 유배우인 경우는 49.6%에 불과했으나 남성 상용직 중 유배우 상태는 무려 69.0%(남성 임시·일용직 49.5%)로 19.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한 여성이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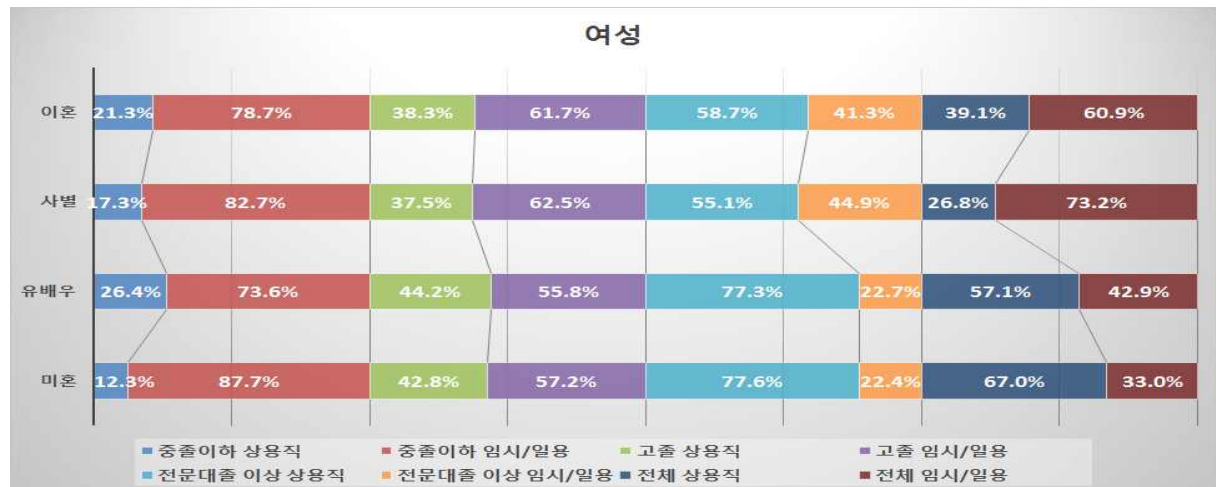


〈그림 16〉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에 따른 혼인상태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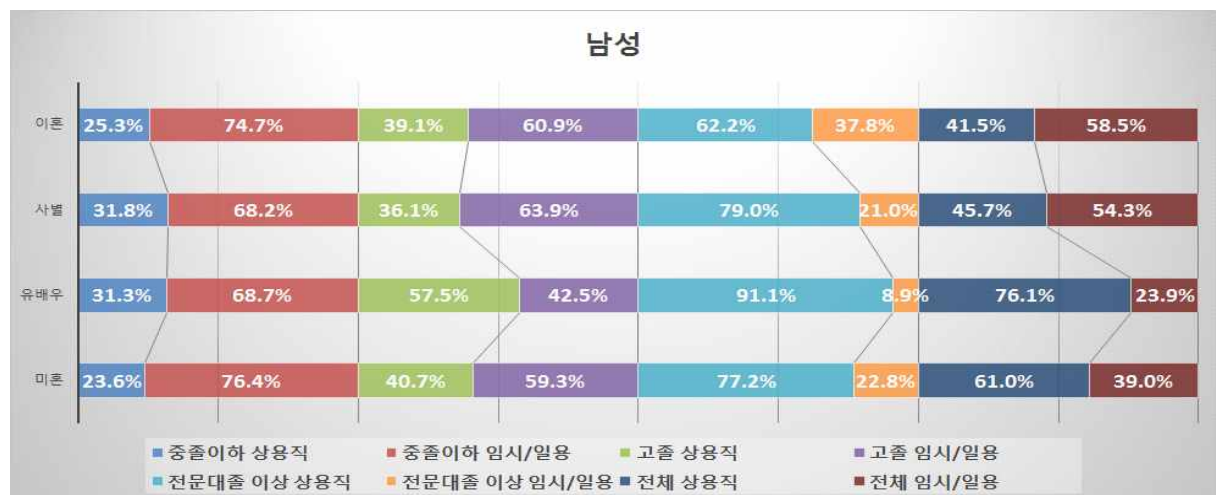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7>, <그림 18>은 혼인상태와 학력을 교차하여 성별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구성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그 결과 여성은 중졸 이하에서는 이혼(78.7%), 사별(82.7%), 유배우(73.6%), 미혼(87.7%)모두 임시·일용직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에서도 이혼이나 사별 상태인 경우에는 유배우와 미혼의 임시·일용직 비율(22.7%, 22.4%) 보다 임시·일용직 비율(각각 41.3%, 44.9%)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혼인상태에서 볼 때 고졸 이상에서부터 상용직 비율이 임시·일용직 비율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졸 이상 남성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91.1%가 상용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에서 이혼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37.8%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7.5%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7>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학력별 여성노동자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그림 18>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학력별 남성노동자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5) 임금

- 가장 평균 임금이 높은 노동자는 남성 상용직(평균 370.6만원), 그 다음 여성 상용직(248.8만원), 남성 임시·일용(170.7만원), 여성 임시·일용(123.7만원) 순
- 남성 상용직 평균 임금이 100일 때 여성 임시·일용직 임금은 33.4, 남성 임시·일용직 임금은 46.1, 여성 상용직 임금은 67.1에 불과

다음의 <표 10>은 종사상 지위별로 성별 임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였다.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남성 임시·일용직, 여성 상용직, 남성 상용직 순으로 임금이 높아졌다. 여성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23.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남성 임시·일용직은 170.7만원, 여성 상용직 248.8만원, 남성 상용직 370.6만원 인 것으로 파악된다. 월평균 임금을 소득 5분위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 하위 20%의 경우 여성 임시·일용직은 60만원으로 가장 임금이 낮았고, 남성 임시·일용직은 100만원, 여성 상용직은 200만원, 남성 상용직은 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위 20%(80%)는 여성 임시·일용직이 18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다음 남성 임시·일용직 230만원, 여성 상용직 306만원, 남성 상용직 5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서울지역 종사상 지위별·성별·소득 5분위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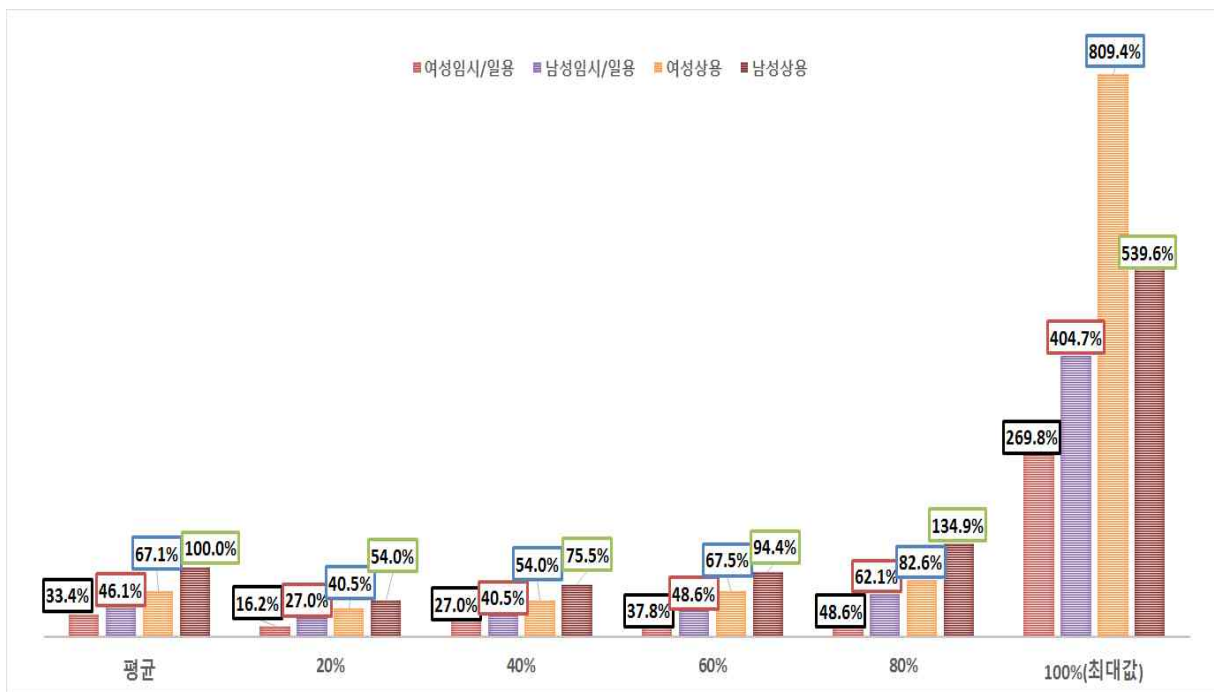
구분	여성 임시/일용	남성 임시/일용	여성상용	남성상용
평균	123.7	170.7	248.8	370.6
중간값	120	160	200	300
20%	60	100	150	200
40%	100	150	200	280
60%	140	180	250	350
80%	180	230	306	500
100%(최대)	1000	1500	3000	2000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100%는 3개월 평균임금의 최대값을 표시한 결과임.

3. 주당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 수치임.

다음의 <그림 19>는 남성 상용직 월평균 임금 370.6만원을 100으로 가정 했을 때 종사 상 지위와 성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소득 5분위별로 나누어 남성 상용직 월평균 임금이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임시·일용직은 남성 상용직 평균 임금의 3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남성 임시·일용직 46.1%, 여성 상용직의 67.1%에 불과했다. 즉 성별과 종사상 지위가 겹치면 남성정규직 보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20%)의 경우에도 여성 임시·일용직은 16.2%(남성 임시·일용직은 27.0%, 여성 상용직은 40.5%)에 불과했다. 상위 20%(80%)의 경우에도 여성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상용직 임금이 비해 48.6%에 불과하다.



<그림 19> 서울지역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여성근로자 구성비 비교

- 자료: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2. 남성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370.6만원을 100으로 했을 때 결과임.
 3. 주된 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4. 100%는 3개월 평균임금의 최대값을 표시한 결과임.

4. 나가며

이 글은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을 통계청 통계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비록 추정치이나 현재 제시되는 통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지역 노동자는 비정규직 일수록, 고령 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혼 또는 사별 상태일수록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금 처우도 여성이고 임시·일용직 일수록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 비정규 노동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차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직면하는 차별은 성별과 함께 고용형태, 연령, 혼인상태, 임금 등 여러 요인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중층적 차별이기 때문이다.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경험하는 중층적 차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 및 고용형태, 연령 등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교차하여 분석하는 지역 노동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성별 교차분석이 포함된 지역 노동통계 생산은 서울의 여성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차별을 드러내고 비정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5. “고용형태 공시제-2015년 기업매뉴얼”.
- 김종진·윤자호. 2016. 『2016년 서울지역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서울 및 25개 자치구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진희·박세정. 2014.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성별임금격차 원인 분석”, 『고용동향 브리프』. 2014년 10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2015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서울노동권익센터.
- . 2016. 『2016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서울노동권익센터.
- 통계청.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홈페이지

-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 통계청 <http://kosis.kr/>
- OECD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